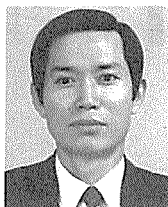


글로벌 競爭 優位 위한 轉換 必要

정보산업이 생활의 큰변화와 복지증진에 기여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나 지난 90년도 이전의 국내정보산업계는 해외 기술의 複寫(copy), 미국 및 일본의 신제품중계유통 수준이고 독자적인 생산기술없이 단순기능수행 생산 설비투자로 중간재의 해외 의존도가 75%이상이며 OEM에 의한 수출 및 외화 가 득률은 40%이하로서 외형성장위주의 사업전개와 외국정보 통신산업의 국내 수퍼마켓 역할을 하는 제3차 산업형태로 유지돼 왔다고 볼 수도 있다. 더욱이 이들 업종의 종사자인 기술 인력은 핵심기술 및 첨단기술 습득 노력없이 국내용 응용프로그램 몇개를 작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국소기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마치 첨단기술Know-how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여 기술자로 용케 인정을 받아왔고, 사업자들은 화려한 해외메스컴의 선전에 현혹되어 예술과 실용, 기능과 기술의 구분없이 채1년후도 내다보지 못하는 불확실한 사업에 맹인이 꽃가게 운영하듯이 우루루 참여하여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향후 2000년대에는 기업과 국가, 그리고 국민의 번영은 최첨단기술 기반위에선 새로운 제2차 산업군의 부흥에서 비롯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정보산업계는 좁은 국내시장을 석권하려 하지말고 국제경쟁(Global Competi-



崔震祥

포스데이타(주) 사장보좌역

tion)에서 우위를 차지하고자 노력을 해야한다. 우선 생산 및 기술부문에서는 관련 Know-how를 확실하게 보유하고 이를 상호교환전파협력하고 도입기술은 공개하여 국익차원에서 중복투자를 방지해야 하며, 기술자들은 습득기술에 반드시 개발과 개조로써 부가적 가치를 부여하고 신기술 창조를 위해 피나는 노력을 경주하며 특히 상호 우호적이고 겸손한 자세로 상대방을 존경하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사업 전개에 있어서는 해외수출 시장분석과 장기적 시장전망을 정확히 하여 3차산업식 경영에서 탈피한 산업 시설보유 첨단2차산업에 투자함으로써 안정적인 장기성장을 이루어나가야 할 것이며, 개인은 집단의 이익을, 집단은 국익 및 국민복지와 일치되는 사업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